

## 인터넷 사용, 가족관계와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모형 비교

배성만\*, 고영삼\*\*

###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 가족 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모형 비교를 통해 검증한 것이다.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인터넷 사용이 가족관계를 완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모형 1)과 인터넷 사용이 가족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모형 2)을 비교하였다. 최종모형(모형 1)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수록 가족 간의 유대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간의 유대가 낮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가족 관계가 두 변인간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주제어: 인터넷 사용, 가족관계, 사이버폭력, 모형 비교, 인터넷 과의존, 인터넷 중독

##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Family Relationship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Comparison of Model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e, Sung-Man, Koh, Young-Sam

###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family relationship,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by comparing models. 2013 The survey of Internet addiction of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used in this study to verify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 compared the model which internet use impact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through mediating fully family relationship and other model which internet use influence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through mediating partially family relationship. Based on final model (model 1), More internet use was related to lower family bond and lower family bond was associated with more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This results imply that family relationship have an important role in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rather than internet use impact directly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Keywords: internet use, family relationship,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comparing models, internet addiction, internet over-dependence

2017년 2월 1일 접수, 2017년 2월 9일 심사, 2017년 3월 11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spirit73@hanmail.net)

\*\*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yeskoh@hanmail.net)

## I. 서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의한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 불법행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건수를 보면 2011년에 5712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며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 그리고 2015년에는 1만5043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5)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17.2%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17.5%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고교생 가해자 중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3.6%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복수를 하고 싶었다(31.9%), 우울 불안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18.9%), 자살자해를 하고 싶었다(3.8%),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를 가기 싫었다(9.7%) 등 부정적인 심리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 타인에게 노출되다보니 심리적인 고통도 오프라인상의 폭력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과거 인기 가수와 톱 여배우의 자살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아닐지라도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한편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들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다. 일본의 경우, 2013년 1,000명의 네티우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sup>1)</sup> “그들의 평균 연령은 38.1세, 수입은 일본 평균인 450만 엔(연봉)보다 높았으며, 학력은 63%가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비

교적 저연령, 저소득, 저학력 층이 많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인식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김정철, 2016).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스트레스부터 자살이나 살인에 이르기 까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또한 사춘기 청소년들의 단순한 장난 이상으로 성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책상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 등과 같이 폭력의 사이클에 따라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의 원인으로 특히 인터넷의 사용과 가족관계가 사이버폭력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 인터넷 사용시간(Rice, et al., 2015), 페이스북 친구의 수(Peluchette, et al., 2015), 게시판 및 블로그 사용(Holt, et al., 2014), 온라인 게임(Chang, et al., 2015), SNS 사용(Park, et al., 2014) 등 다양한 인터넷 사용을 사이버폭력의 피해와 연관시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터넷 과다사용이 가족갈등과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고영삼, 2012) 인터넷 사용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사이버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이 분야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해 보인다.

## II.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선행연구

###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사이버폭력이란 아직 학계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1) 네티우익(ネトウキ)은 일본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혐오스러운 비방을 하고 사이버불링을 일으키는 집단을 말한다

망을 통해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설명한다(정한라, 2013). 매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그러나 법 용어로는 사이버폭력이란 용어 대신에 사이버 따돌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 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경은 외(2012)는 사이버 폭력을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욕설, 비난, 위협, 유언비어, 따돌림과 괴롭힘 등과 같은 행위"라고 정의하고도 있다. 이렇듯 대개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행동을 이메일, 문자, 게시판,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악성 댓글, 지속적인 괴롭힘, 음란물 유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일체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남재성 외, 2011; 조운오, 2013).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및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괴롭힘(예, 비난, 유언비어) 및 불법 행위(예, 타인의 주민등록 도용)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 폭

력 피해는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괴롭힘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 2.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면 어찌될까? 특히 청소년들은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문자, 채팅, SNS 등의 사용에 익숙한 집단이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해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박성훈 외, 2015).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폭력 피해가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자존감이 낮았으며(Kowalski, et al., 2014), 사이버 폭력 피해 집단은 오프라인 폭력 피해 집단만큼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일상의 적응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man, et al., 2012; Campbell, et al., 2012; Olweus, 2012).

최근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는 명확한 이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에서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나, 사이버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만약 사이버폭력의 원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기반하여 교육교재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의 이론들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의하면 사이버폭력(또는 범죄) 피해는 가해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Bossler, et al., 2012). 이 이론에 의하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폭력이나 범죄 위험 지역에서의 거주 등이 폭력피해의 위험환경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과도한

2) 예를 들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되기 교육, 리터러시 교육, 사이버인성 교육 등의 교재를 만들거나, 국어 등 각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서, 동영상 자료 등을 발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정보윤리 창작음악제를 개최하거나 자율적인 예방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의 위험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Leung, et al., 2012). 최근에는 PC에서 가능했던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이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PC에서 스마트폰 환경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다양한 인터넷 사용 중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SNS 활동이다(Cao, et al., 2015). 특히 청소년이나 20대 젊은 성인들은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에 있어 SNS (예,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활용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러한 현상은 과도한 SNS 활동이 사이버폭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 몇몇 연구에서 SNS 활동이 많을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는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wan, et al., 2013). 특히,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SNS 사용을 통해 공개되는 다양한 인적사항은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채팅, 게시판 및 블로그, SNS 사용 같은 인터넷 사용 양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터넷 사용량을 측정하는데 있어 제한된 측정치만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용 시간의 경우 주중과 주말의 사용 시간이 다르며, 사이버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활동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중의 인터넷 사용시간, 주말의 인터넷 사용시간 및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활동을 인터넷 사용의 하위 변인으로 포함시켜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한편 사이버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변인은 가족변인이다. 특히, 부모와의 유대, 부모의 지도 감독, 부모자녀 대화 등 부모자녀 관련 변인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Kokkinos, et al., 2016; Larranaga, et al., 2016).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서도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의 유대가 폭력 및 범죄 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Peterson, et al., 2016). 특히 부모자녀 간의 낮은 유대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의 부재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Guo(2016)의 메타분석에서도 가족환경은 성격 변인들과 더불어 사이버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673명의 오스트레일리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부모갈등과 부모애착은 사이버폭력 피해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Hemphill, et al., 2015).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사용한 인터넷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사이버폭력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가족과의 대화 및 접촉시간을 줄일 수 있다. 김상문(2015)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 교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는데,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은 증가하는 대신, 가족들과의 대면접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이 부모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국외의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과다사용이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ca, et al., 2015). Derks,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이 가족 간의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과다사용은 가족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낮추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동이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가족과의 갈등 및 낮은 유대감은 사이버폭력 피해를 높이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가족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했는데, 가족

변인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이 학교변인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학교변인(예, 교사관계, 친구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인터넷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정서적,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가족관계의 영향력에 비해 학교변인(교사관계, 학교환경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하지 못했다(e.g., Hemphill, et al. 2015). 최근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사이버 폭력 피해에 미치는 가족변인의 영향력이 학교변인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Guo, 2016). 따라서 사이버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모델이 부재된 상황에서 간명하면서도 강력한 모형을 가정하는데 있어 가족관계를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문헌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 가족 관계 및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사용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커질 것인가?

둘째, 인터넷 사용이 많을수록 가족관계의 질은 낮아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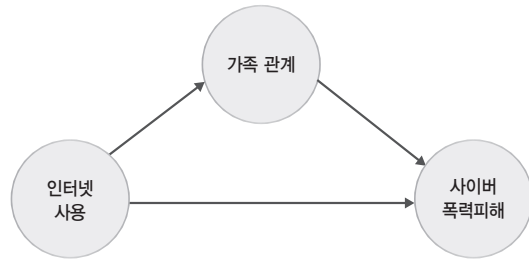
셋째, 가족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커질 것인가?

넷째, 가족관계가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기존에 연구들에 기초할 때, 인터넷 사용, 가족관계 및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데 있어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의 필요조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가족 관계를 완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1: 완전매개모형]



[연구모형 2: 부분매개모형]

### Ⅲ.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의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 도에 거주하는 만 5-54세 17,5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표집방법은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대비 비례할당 방법을 사용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0.74\%$ 였다. 조사는 전문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에 피험자의 응답내용을 직접 기입하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자료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2,31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사이버폭력 피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사이버폭력 각 항목(사이버사기 피해, 음란물유포 피해,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 성적유인의 피해)에 대한 피해 횟수를 측정하였으며, 각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2317)

변인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	1,193	51.5	
	여	1,124	48.5	
학년	중학생	1학년	499	21.5
		2학년	498	21.5
		3학년	308	13.3
	고등학생	1학년	326	14.1
		2학년	369	15.9
		3학년	317	13.7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2회=1, 3-5회=2, 6-10회=3, 11-20회=4, 21-50회=5, 50회 이상=6). 문항 간의 Cronbach's Alpha는 .70으로 나타났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사이버폭력 피해 점수로 가정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중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주말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을 측정하였다. 주중 및 주말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사용 시간을 측정하였다(예, 1시간=1). 스마트폰을 사용한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7점 척도(3분 미만=1, 3분 이상 5분 미만=2, 5분 이상 7분 미만=3, 7분 이상 10분 미만=4, 10분 이상 15분 미만=5, 15분 이상 20분 미만=6, 20분 이상=7)로 측정되었다.

## 3) 가족 관계

가족 간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5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총점이 클수록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의 Cronbach's

Alpha는 .85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문항1)', '우리가족은 나를 이해한다(문항2)', '우리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문항3)', '우리가족은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문항4)', '나는 우리가족에 만족한다(문항5)'.

## 3. 분석방법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변인들이 본래 측정하고자 한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이제곱 값, NFI, IFI, TLI, CFI, RMSEA 값을 활용하였다(홍세희, 2002). SNS 사용 시간 변인에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어 GFI, AGFI 값은 산출되지 않았다. 모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카이제곱 값이 기각되는 것이 중요하나, 카이제곱 값은 피험자 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른 적합도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도 지표 NFI, IFI, TLI, CFI는 .90이상 그리고 RMSEA는 .50 이하이면 양호한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 IV. 결과

적합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표 3). 즉, 측정 변인들이 전체구인을 적절히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 1.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카이자승 값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표들을 고려할 때, 측정모형의

### 2. 모형비교

완전 매개하는 모형(모형 1)과 부분 매개하는 모형(모형 2)을 비교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분석을 활용하였

〈표 2〉 전체측정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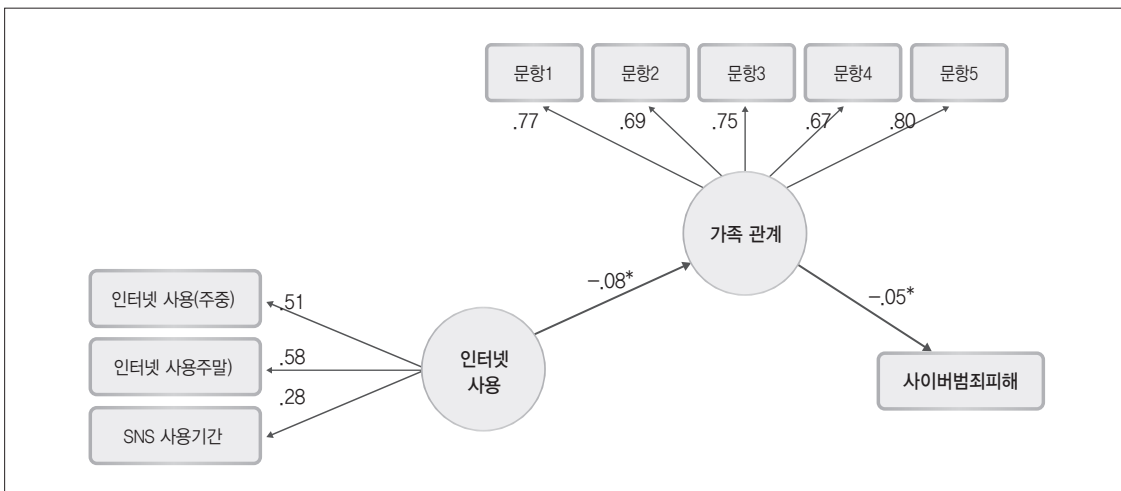
	$\chi^2$	df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변인	83,416	41	.988	.994	.990	.994	.021

〈표 3〉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chi^2$	df	NFI	IFI	TLI	CFI	RMSEA
모형 1	47,848	26	.990	.996	.992	.996	.019
모형 2	47,283	25	.991	.996	.992	.995	.020

〈표 4〉 최종모형의 회귀계수

경로	Estimate	S.E	C,R
인터넷 사용 → 가족 관계	-.007	.003	-2.152*
가족 관계 → 사이버범죄 피해	-.137	.057	-2.389*



〈그림 1〉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다. 모형 1과 모형 2는 등지관계이기 때문에  $\chi^2$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chi^2$  차이검증은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할 때마다 유의수준이 5%일 경우  $\chi^2$  값이 3.84 이상으로 감소하면 간명성이 낮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모형의 부합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Bentler, et al., 1980).

모형 1의 적합도 검증 결과(〈표 3〉),  $\chi^2$  값이 각각이었으나( $p < .05$ ), NFI, IFI, TLI, CFI, RMSEA가 각각 .990, .996, .992, .996, .019로 나타나 우수한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chi^2$  차이검증에 의해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한 결과, 모형 2가 모형 1에 비해 자유도가 1개 감소하였으나,  $\chi^2$  값이 0.565 감소하여 모형 1에 비해 모형 2가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

최종모형(모형 1)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유대 및 친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152, p < .05$ ).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와 친밀감이 낮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 = -2.389, p < .05$ ).

## V. 논의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 가족 관계 및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사용은 사이버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족 관계를 완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유대와 친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간의 유대와 친밀감이 낮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검증한 과거의 연구들(Chang, et al., 2015; Park, et al., 2014)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과거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중 인터넷 사용, 주말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사용 같이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측정치들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

용 정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을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사용 양이 사이버폭력 피해의 필수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수록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보이는 청소년들 중에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들을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족 관계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 변인이 있어야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한다(Baron, et al., 1986).

과거 연구에서 과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부정적 결과들(예, 부모자녀 갈등, 사이버폭력 피해)은 확인되었으나, 스마트폰에 의한 SNS 사용이 가족관계나 사이버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확인되지 못했다. 최근 Zhang, et al.(2016)가 스마트폰에 의한 과도한 SNS 사용이 가족관계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했으나, 이 연구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다른 하위변인들을 측정하지 않았고, 사이버폭력 피해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사용을 포함한 인터넷 사용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인터넷 및 SNS 사용은 부모 및 가족 간의 대면접촉이나 대화시간을 줄여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방해할 수 있다. 나아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 간의(특히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이 저하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및 범죄 피해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쉽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인터넷 및 SNS의 사용은 청소년들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부모님들의 강압적인 통제에는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는데 있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인터넷 사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모, 교사 및 상담가는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다양한 활동(체험, 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여가시간의 지루함이나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대안적 행동일 수 있다(Lin, et al., 2008). 따라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실천하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시간을 정하는데 있어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강압에 의한 인터넷 사용의 중지는 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적어 보인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사용이 가족 간의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SNS 사용은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긍정적 친구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성인들에게도 지인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예전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Ali, 2016).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정과 지지를 사이버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SNS 사용은 대인관계를 확대시키고 대인관계 만족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SNS 활동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친구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Frison, et al., 2015; Valkenburg, et al., 2009), 가족 또는 부모와의 관계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13; Sorbring, 201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의 차별화된 역할을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가족 간의 유대가 낮고 친밀감이 부족할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의 유대 결핍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 및 폭력 행동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부모의 지도감독이나 가족들의 관여는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의 가해자로부터의 폭력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가족들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구성원들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패턴이나 이용목적을 이해하고, 인터넷을 더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력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관계의 완전매개 역할은 가족 간의 대화와 부모의 지도감독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이해하는데 있어 단순히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피해를 연결하는 제 3의 요인에 대해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 조절에 대한 노력과 가족 간의 유대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줄이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폭력행동에 있어 유해한 환경에의 노출을 강조하는 이론들(예, 일상활동이론, 범죄기회이론)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설명하는데 있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통제이론이나 대인관계이론의 효과를 비교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버폭력 피해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전체 피험자 중 일부이기 때문

에 측정변인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운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나 측정과정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인터넷 사용의 유형(예, 게임, 사회적 활동, 정보 검색 등)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용이 대인관계의 유형(가족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등)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NS사용이 대인관계와 사이버폭력 피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VI.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인터넷 사용, 가족관계 및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적기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수행하는 실태조사를 다시 재구조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이버폭력은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방법도 정보기기의 다변화,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응방법이 새로운 양태의 폭력이나 번성하는 사이버 폭력문화를 얼마나 잘 억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실태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효과성을 일정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그러나 사이버폭력은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우리들의 일상에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지라도 무언가 미진인 것이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차제에 가해자와 피해자 수를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실태조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복합적인 것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보완한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SNS 사용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족관계가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가족요인 이외의 변인들, 예를 들어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도, 개인적 심리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다양한 디지털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이 어떤 원거리 요인에 의해 시작되고, 또 어떤 근거리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스마트폰, SNS 시대에 알맞은 기능적인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모범적 롤 모델을 만들고 이에 맞춘 가족문화교육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가족관계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이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사이버폭력과 연관된 다양한 예방교육, 예를 들어 사이버 인성교육, 사이버 성교육, 사이버 문해교육, 사이버 친절교육 등의 교육을 기능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문화형성, 그리고 나아가 제도를 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일과 여가, 혹은 일과 삶의 균형잡힌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제도를 맞추어가는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활동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 또는 부모와의 관계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부모들의 SNS 사용 또한 부모들의 친구 및 사회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고, 가족관계를 소원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SNS는 가족관계

에 역기능적인 매체인가? 가족 간의 단톡방은 대화가 부족한 현대 가족들간의 유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모바일 매체가 지배적인 이 시대에 알맞은 가족문화를 배양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부모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기능적 가족관계가 되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면 예방교육의 대상을 학생보다는 그 부모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사이버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는 곧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 전환이 매우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불안과 심적 스트레스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가정책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예방교육만 시키고 있을 뿐 치유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에 의해 자살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때문에 고민스러워 학업을 포기하고 지내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마침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국에 인터넷 과의존을 치유하는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사이버 폭력의 가해 및 피해자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문제를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상담사들이 사이버폭력문제까지도 치유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 ■ 참고문헌

- 고영삼 (2012). 「인터넷에 빠졌긴 아이」. 서울: 베가북스.
- 고영삼 (2014). “사이버폭력과 인터넷중독, 대응정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포럼」, (2014. 12). 서울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김경은·윤혜미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계변인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 김경철 (2016). “입체취재 한일동병상련 연구: 보이지 않는 폭력, 사이버불링.” 「월간중앙」, 201610호(2016.09.17.),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3283>
- 김상문 (2015).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 교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4): 71-92.
- 남재성·장정현 (2011).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 비행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7(3): 101-117.
- 박성훈·심현정 (2015). “SNS에서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특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1): 156-185.
- 정한라 (2013).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년 10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조운오 (2013).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 실태 및 피해 유발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3: 203-228.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013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Ali, R. (2016). “Social media and youth in Parkistan: implications on family relations.” *Global Media Journal*, 14(26:24): 1-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man, L., Hagquist, C. & Hellström, L. (2012). “Does the association with psychoso-matic health problems differ between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17: 421-34.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0.
- Bossler, A. M., Holt, T. J. & May, D. C. (2012). “Predicting online harassment among a juvenile population.” *Youth & Society*, 44: 500-523.

- Borca, G., Bina, M., Keller, P. S. & Gilbert, L. R. (2015). "Tatiana Begotti Internet use and developmental tasks: Adolescents' point of 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2: 49-58.
- Campbell, M., Spears, B., Slee, P., Butler, D. & Kift, S. (2012). "Victims' perceptions of traditional and cyberbullying, and the psychosocial correlates of their victimization."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17: 389-401.
- Cao, B. & Lin, W. Y. (2015). "How do victims react to cyberbullying on social networking sites? The influence of previous cyber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2: 458-465.
- Chang, F. C., Chiu, C. H., Miao, N. F., Chen, P. H., Lee, C. M., Chiang, J. T. & Pan, Y. C.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ediation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 association with cyberbullying and depression." *Comprehensive Psychiatry*, 57: 21-28.
- Chang, F. C., Chiu, C. H., Miao, N. F., Chen, P. H., Lee, C. M., Huang, T. F. & Pan, Y. C. (2015). "Online gaming and risks predict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0: 257-266.
- Derks, D., van Duin, D., Tims, M. & Bakker, A. B. (2015). "Smartphone use and work-home interference: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norms and employee work engage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8: 155-177.
- Frison, E. & Eggermont, S. (2015).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adolescents' depressed mood: The role of social support seeking through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4: 315-325.
- Guo, S. (201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53(4), 432-453.
- Hemphill, S. A., Tollit, M., Kotevski, A. & Heerde, J. A. (2015). "Predictors of Traditional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30(15): 2567-2590.
- Holt, T., Fitzgerald, S., Bossler, A. M., Chee, G. & Ng, E. (2014). "Assessing the Risk Factors of Cyber and Mobile Phone Bullying Victimization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ingapore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0(5): 598-615.
- Kokkinos, C., Antoniadou, N., Asdre, A. & Voulgaridou, K. (2016). "Parenting and Internet Behavior Predictors of Cyber-Bullying and Cyber-Victimization among Preadolescents." *Deviant Behavior*, 37(4): 439-455.
- Kowalski, R. M., Giumetti, G. W., Schroeder, A. N. & Lattanner, M. R. (2014). "Bully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140: 1073-137.
- Kwan, G. C. E. & Skoric, M. M. (2013). "Facebook bullying: An extension of battles in schoo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16-25.
- Larranaga, E., Yubero, S., Ovejero, A. & Navarro, R. (2016). "Lonelines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mong Spanish youth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5: 1-8.
- Leung, L. & Lee, P. (2012). "The influences of information literacy, internet addiction and parenting styles on internet risks." *New Media & Society*, 14(1): 117-136.

- Lin, C. H. & Yu, S. F. (2008). "Adolescent internet usage in Taiwan: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Adolescence*, 43(170): 317-331
- Liu, S. H., Yin, M. C. & Huang, T. H. (2013).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parents and teacher when using Facebook for interaction." *Creative Education*, 4: 335-339.
- Olweus D. (2012) "Cyberbullying: an overrated phenomen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 520-538.
- Park, S., Na, E. Y. & Kim, E. 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activities, netiquette and cyber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42: 74-81.
- Peluchette, J., Karl, K., Wood, C. & Williams, J. (2015). "Cyberbullying victimization: Do victims' personality and risky social network behaviors contribute to the problem?."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2: 424-435.
- Peterson, B. E., Lee, D. W., Henninger, A. M. & Cubellis, M. A. (2016). "Social bonds, juvenile delinquency, and Korean adolescents intra-and inter-individual implications of Hirschi's social bonds theory using panel data." *Crime & Delinquency*, 62(10): 1337-1363.
- Rice, E., Petering, R., Rhoades, H., Winetrobe, H., Goldbach, J., Plant, A., Montoya, J. & Kordic, T. (2015).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mong Middle-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3): 66-72.
- Sorbring, E. (2014). "Parents' concern about their teenage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Family Issues*, 35(1): 75-96.
- Valkenburg, P. M. & Peter, J. (2009). "Social consequences of the Internet for adolescents: A decade of researc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 1-5.
- Zheung, X. & Lee, M. K. O. (2016). "Excessive use of mobile social networking sites: negative consequence on individual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5: 65-76.